

2026 Global Geostrategic Outlook

EY한영 산업연구원

Feb 2026

Insight Report #26-0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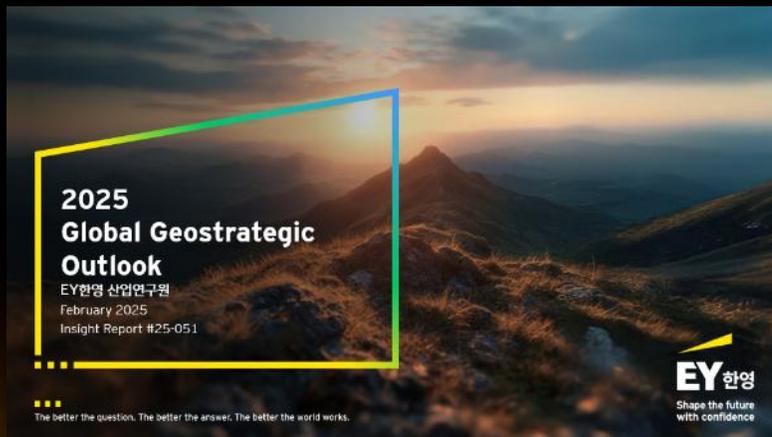
The better the question. The better the answer. The better the world works.



Shape the future
with confid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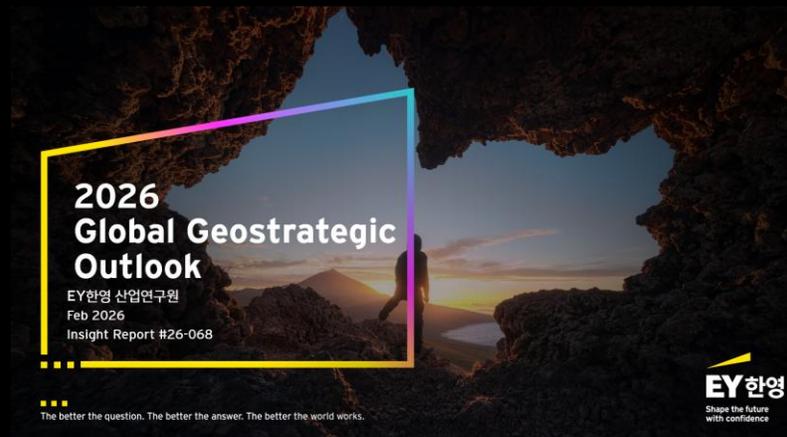
EY Geostrategy Insight Reports

2025



글로벌 주요국에서 **포퓰리즘 성향의 정부 등장**으로 기인한, Top 3 지정학적 이슈 및 산업별 임팩트 분석

2026



국가 개입주의 확산으로 관련 정책들이 확대되는 가운데, 기업인들이 주목해야 할 Top 3 지정학적 이슈 및 산업별 임팩트 분석

본 리포트는 글로벌 EY Geostrategic Business Group 보고서를 활용하여 EY한영 산업연구원이 국내 환경에 맞게 편집, 발간한 자료임

About EY한영 산업연구원

주요 산업군의 변화 및 트렌드를 선제적으로 파악·분석하여 비즈니스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EY한영의 Think Tank입니다.

산업 및 경영환경에 대한 Business 및 Sector Insights 리포트를 발간하는 한편, 다양한 기업에 맞춤형 강연을 통해 차별적인 경영 전략을 제시합니다.

Business Insights



Sector Insights



About Geostrategic Business Group(GBG)

GBG는 지정학적 환경 분석을 기반으로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EY 글로벌 Knowledge 조직입니다.

이론적 전문성 뿐만 아니라, 기업의 지정학적 위기 대응 전략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하여, 불확실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실무적인 전문성도 갖추고 있습니다.

'Geostrategic Outlook' Reports (Selective)



Table of Contents



2026 Top 3
지정학적 이슈



주요 섹터별
Impact



지정학적 이슈
대응 전략



2026 Top 3 지정학적 이슈

The World in 2026 : 국가별 각자도생 기조가 강화되어, 자국 이익만을 위한 전방위적 국가 개입주의 확대

“각자도생”으로의 패러다임 변화

글로벌 지정학적 시나리오



주요국 정부들의 국가 개입주의 확대

정부가 시장의 자율적 작동에 의존하지 않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 경제 활동의 방향과 결과를 의도적으로 조정

- | | | |
|--|---|---|
| 산업 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보조금 지원 세제 혜택 | 무역/투자 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세 부과 수출 통제 외국인 투자 제한 | 금융/자원 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부펀드 조성 정책금융 활용 핵심자원 통제 |
|--|---|---|

주요국의 개입주의 정책 활용 빈도 증가



2026 Top 3 Geostrategic Outlook

State Interventionism

1 국제 질서의 재편 New Rules and Norms

1-1. 돈로주의 등장

1-2. 소규모 다자주의로의 전환

1-3. 자본보호주의 확산

2 새로운 경쟁영역 등장 Next Field of Competition

2-1. 사이버전쟁 확산

2-2. Cold Rush 본격화

3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 The Rise of Global South

3-1. MENA
: AI 패권 지역으로의 진화

3-2. LATAM
: 친시장 기조로의 전환

3-3. South & Southeast Asia
: 글로벌 핵심 생산기지 공고화

3-4. CIS
: 잠재력 높은 시장 Reopening

강대국이 무력을 기반으로 자국의 우선적 영향권 내 적극 개입하는 '돈로주의' 부상

- 美 외교 원칙의 기반이 되었던 '몬로 독트린'(국가間 상호 불간섭 원칙)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경제·군사적 제재를 기반으로 우선적 영향권 내 자국 이익 추구를 정당화하는 '돈로주의'로 전환
- 美 외교 노선의 근본적 변화로 인해, 강대국의 무력 기반 세력권 확장 가속화 가능성 有

美 국가안보전략(NSS) 변화

규범 기반 국제질서 추구

- 서반구² 국가와 제도 기반 협력 및 다자간 안보 전략 실행

자국 이익 최우선주의('25.12)

- 서반구 내 영향력 확대 위한 무력 사용 천명
- 서반구를 안보 요충지로 명명

서반구에 대한 美 개입 흐름



20c 냉전기 공산주의 확산 억제 위한 개입

- 1 엘살바도르 내전('80s)
- 2 그레나다 침공('83)
- 3 파나마 침공('89)

21c 자국 이익 극대화 위한 개입

- 4 베네수엘라 공격('26)
- 5 그린란드 합병 시도('26)

BUSINESS IMPLICATIONS

- 1 국가 리스크 발생에 대비한 지정학적 Framework 구축
 - 발생 가능 시나리오 수립 및 대응 Playbook 선제적 설계
- 2 조달 안정성에 초점을 둔 다중 공급망 체계 구축
 - 중장기적 공급망 안정성을 보장하는 물류/생산 전략 수립

주요 강대국의 세력권 내 외교 정책에 적극적인 무력 개입 발생 가능성 확대

1. 돈로주의(Donroe Doctrine): 1820년대 미국의 5대 대통령인 제임스 먼로가 주창한 대외 정책을 뜻하는 '먼로주의'에 트럼프 대통령의 'D'를 합친 신조어 Source: NSS, EY Analysis 2.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를 지나는 본초 자오선(경도 0°) 기준 서쪽으로 아메리카 대륙 및 그린란드 포함

돈로주의 기반 역내 영향력 확대를 추구하는 국가들의 무력 사용 정당화 가능성 有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 종전협상 진행('25.11~)



■ 러 점령·영토편입 주장 지역

**美 제안
종전협상 초안**

선제 공격을 시작한 러시아의 크림·루한스크·도네츠크 획득을 사실상 인정하는 조항 기재¹

러시아는 전쟁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금번 전쟁을 통해 획득한 최대한의 전략적 이익(우크라이나 영토 등) 확보에 집중

1. Reuters 공개 초안 내용 기반 ('25.11)
Source: 미국 전쟁연구소(ISW), Reuters, 조선일보, EY Analysis

중국의 대만 포위 군사훈련 실시('25.12~)



**중국의
대만 압박**

항만 봉쇄 시뮬레이션 및 약 10시간의 실사격 훈련 등이 포함된 대규모 군사훈련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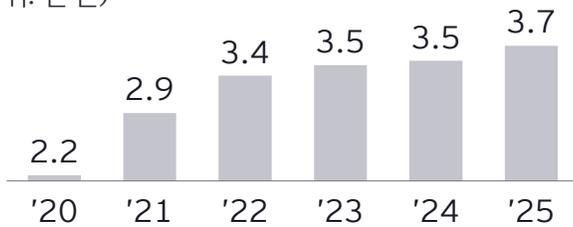
중국 또한, 돈로주의를 빌미로 대만 및 남중국해에 대한 야욕을 정당화할 가능성 존재

전 세계적 보호무역 기조의 지속적 확대로 보편적 자유무역주의 쇠퇴 가속화

- 기존 WTO 중심의 자유무역질서는 미-중 통상전쟁 및 주요국 보호무역 정책 확대로 쇠퇴 중
- 전 세계적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국가들 간의 소규모 다자주의 (Mini-lateralism) 무역 체계로의 전환

글로벌 신규 무역규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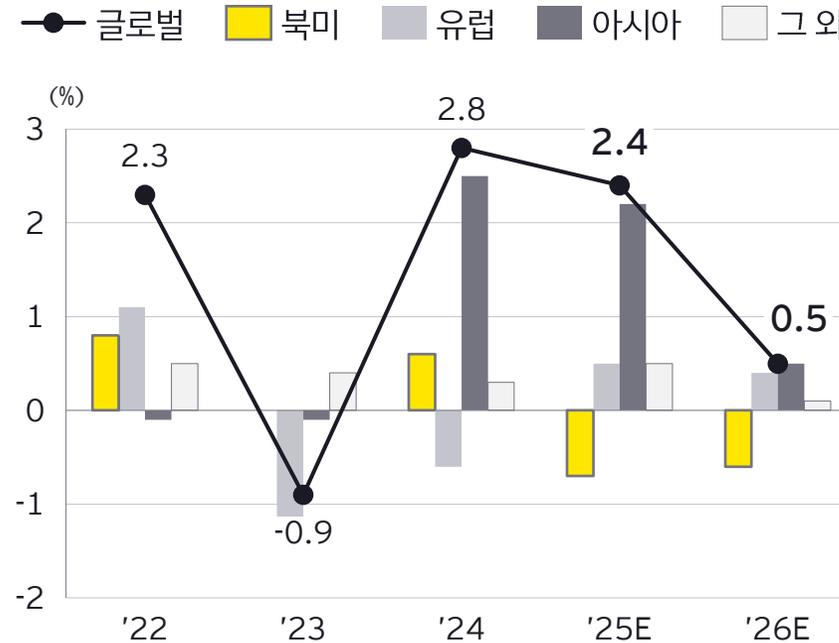
(단위: 천건)



美 무역 정책 불확실성 지수 증가



글로벌 교역량 하락 전망 및 지역별 기여도¹



BUSINESS IMPLICATIONS

- 무역규제·관세 리스크 낮은 국가 중심 생산거점 재배치
 - 고관세 구간 공정(조립 등) 및 품목부터 우선적 이전
- 신규 체결 무역 협정 고려한 사내 공급망 정책 재수립
 - 특히, 전략산업의 핵심 자원 및 설비에 대한 소싱 방안 다변화

1. 글로벌 교역량 증감율에서 각 대륙 내 국가가 차지한 비중
Source: GTA, WTO, Economic Policy Uncertainty (EPU), EY Analysis

주요국은 美·中 제외된 소규모 다자주의 협정으로 안정적인 무역 환경 구축 노력

최근 체결된 주요 무역 협정 및 사안

협정명	개요 및 방향성	주요 참여국 및 참고 사항
FIT-P¹ (미래 투자 및 무역 파트너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싱가포르·UAE 주도 하 출범('25.11) 규칙 기반의 예측 가능한 무역 질서 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 중심 16²개국 (*한국 미가입)
CPTPP³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속력 높은 FTA⁴ 기반 경제협정으로 주요국 관심도 高 英 가입('24.12) 및 한국·EU 가입 의사 표명('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대형 선진국, 개방형 통상국, 신흥국 등 12개국⁵
EU-인도 FTA 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년간 논의된 FTA 타결하며 상호 공급망 강화('26.01) 상품별 단계적 90+% 관세 철폐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측의 경제 규모 합산 시, 글로벌 GDP의 약 25% 차지
美 WTO 탈퇴 선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세 중심 무역 공식화, WTO체제 사실상 탈퇴('25.08) 상대국과 상호관세 합의 후, 이행여부 직접 감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자 무역 합의 기반 상호관세 부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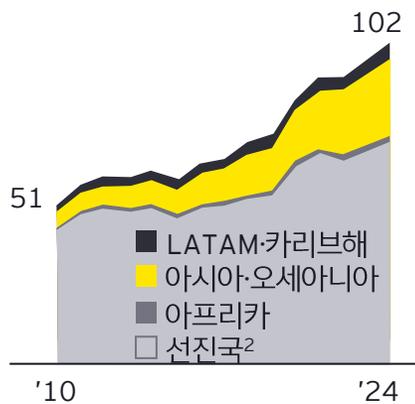
1. Future of Investment and Trade Partnership 2. 노르웨이, 뉴질랜드, 르완다, 리히텐슈타인, 말레이시아, 모로코, 브루나이, 스위스, 싱가포르, 아이슬란드, 우루과이, UAE, 칠레, 코스타리카, 파나마, 파라과이 3.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美 '17년 탈퇴(TPP 시기) 4. 즉시/점진적으로 관세를 낮춰 최종적으로 관세율표(tariff lines) 약 99% 수준까지 철폐 목표, 의무 조항 위반 시 분쟁해결 절차를 거쳐 상대국이 보복조치(양허정지) 또는 금전평가 가능 5.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멕시코,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영국, 일본, 캐나다, 칠레, 페루, 호주(미국은 '17년 제1기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우선' 통상 전환을 상징하는 조치로 공식 탈퇴)

주요국 재정 건전성 악화는 글로벌 자금 흐름의 분절화를 초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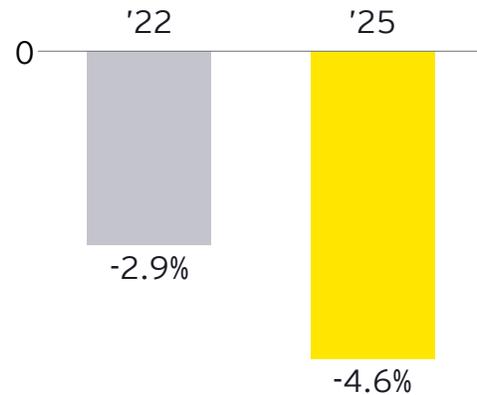
- 미국 등 선진국의 높은 부채 및 지속적인 확장 재정정책은 자국의 재정건전성 악화 유발
- 이에 따른 리스크 헷지를 위해, 자본 이동에 대한 심사·규제를 강화하는 등 국가 자본 흐름을 통제하는 정책이 강화되고 있음

주요국은 만성적 부채 증가에도 확장 재정 기조 유지

글로벌 부채¹ 추이 (조 달러)



선진국² GDP비 평균 재정수지



'26년 국방 예산 증가율(YoY)



주요국의 AI 예산³ 증가율(YoY)



금융 시장 변동성 확대는 국가경쟁력과 안보 리스크를 증폭시키며, 자본의 유출입을 선별적으로 통제하는 '자본보호주의' 촉진

BUSINESS IMPLICATIONS

1 산업정책 연계 의무 확대 등 대외 자본 투자 요건 재점검

- Capex 및 M&A 투자에 동반되는 정책 요건 및 컴플라이언스 검토

2 외환 규제 등으로 인한 현금 회수 지연 가능성 대비 필요

- 송금 한도 지정 등 현금흐름 제한에 기반한 재무적 기회비용 검토

1. 일반 정부 부채(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채무+비영리 공공기관 부채) 2. IMF의 Advanced Economies 41개국 기준
 3. 영국 AISI 2023/24 예산 £35.5m, 2024/25 indicative £64.5m, 미국 FY 2024 Enacted \$2,977.5m, FY2025 Requested \$3,316.1m
 Source: IMF Fiscal Monitor('25.10), UNCTAD

선진국/신흥국 모두 자본보호주의 정책 확대 중

선진국(미국)



국부펀드(SWF¹) 등 해외 국가자본의
직접투자 규제 강화 제안 ('26.01)



As-is

- 외국 정부의 국부펀드의 미국 내 투자 활동으로 분류되는 소득은 면세 혜택 제공

세법 892조 개정 통한 국부펀드의
'투자 활동' 범위 축소 추진

To-be

- 면세 혜택 범위 내에 있던 '투자 활동'을 '상업 활동'으로 전환, 과세 대상으로 간주

총부채에 대한 이자비용이 확대 국면 하,
해외 자본 규제를 통한 세수 확대 및 美 시장 접근 조건화

신흥국(인도네시아)



자원 수출대금의 '국내 보유' 의무 강화
('25.03)



('23.07)

- 천연자원의 수출 대금² 30% 이상을
최소 3개월 동안 국내 금융 시스템 보유 필요



('25.03)

- 非석유·가스 자원 수출 대금 100%
최소 1년간 국내 금융 시스템 보유 의무화

외환시장의 수급 및 환율 안정 위한
외화의 국내 송금 제도화

1. Sovereign Wealth Fund 2. 광업(석유·가스 포함), 플랜테이션, 임업, 어업 등 천연자원 수출로 벌어들인 외화
Source: FT, EY Analysis

경쟁국가 간 사이버전쟁 확산으로 사이버보안이 국가 안보의 핵심 이슈로 부상

- 정치적 성격의 사이버공격 증가로 주요국은 사이버보안을 국가안보·기술 패권을 좌우하는 핵심 영역으로 우선순위화
- 범국가 차원의 정책적 대응이 요구될 만큼 위협의 긴급성이 급격히 확대 중

사이버공격의 지정학적 활용



주요국은 사이버보안을 안보·주권 사안으로 격상

미국	EU	중국
<p>「National Security Strateg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사이버·공급망을 국가안보 핵심 영역으로 명시 	<p>「EU Cybersecurity Strateg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버공격 대응, 디지털 주권 확보 및 회원국 간 조율에 중점 	<p>「사이버 공간의 국제 규범 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버 공간을 국가 주권이 적용되는 영역으로 공식 명시

연합 차원의 사이버공격 대응 본격화

<p>NAT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저 인프라 보호 Initiative² 도입 ▪ 사이버보안 연구·교육·역량 향상 센터 역할 강화³
-------------	---

BUSINESS IMPLICATIONS

- 1 핵심 데이터 및 AI·클라우드 인프라에 대한 보안/통제 강화 필요

 - 전사 사이버보안 체계 재점검 및 대응 가능 인력의 역량 강화
- 2 기존 클라우드 Hyper-Scaler 전략 재점검

 - 국가별 보안·데이터 통제 강화로 기존 글로벌 일원화 클라우드 전략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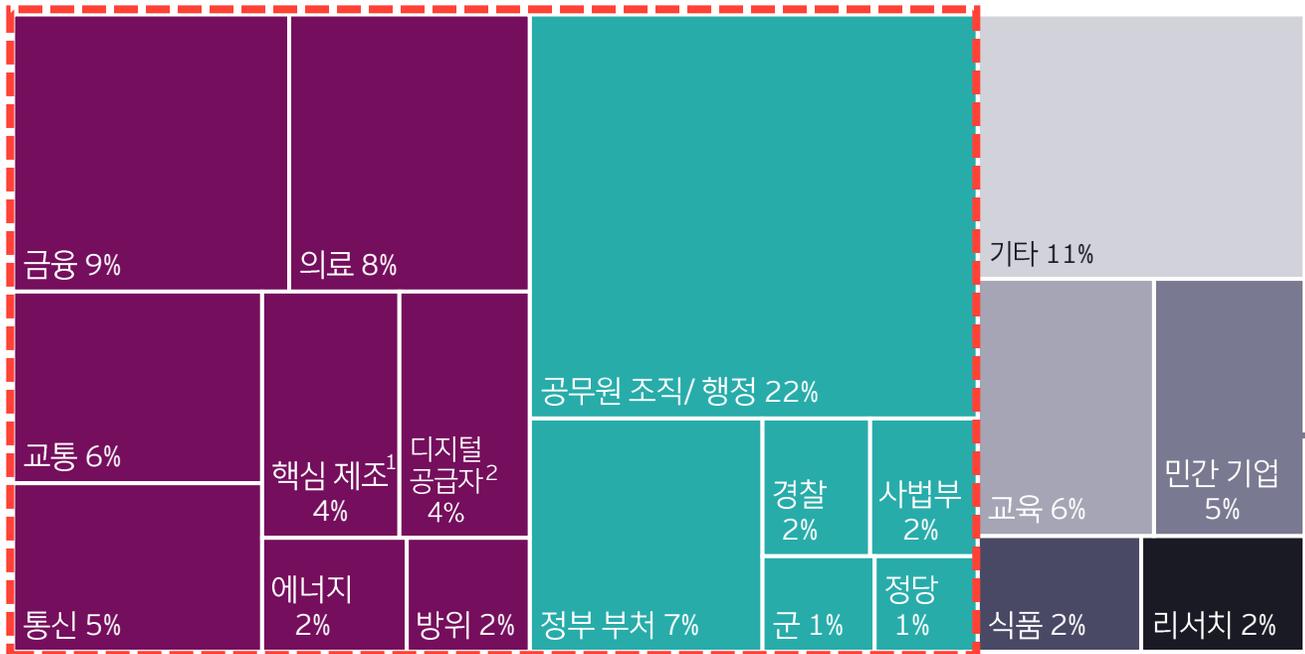
1. 정치적 성격을 지닌 사례로, ①국가 기관에 영향을 미친 사건, ②국가 행위자가 배후로 연관되거나 정치적 동기를 보인 사건, ③피해 대상과 무관하게 공개적으로 정치화된 사건이 포함 2. Baltic Sentry: 해저 케이블·에너지·통신 등 발트해 핵심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한 상시 감시·보호 작전 3. CCDCOE(Cooperative Cyber Defence Centre of Excellence): '25년 NATO 사이버보안 훈련 참가국들의 공동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운영·기술·법률 시나리오를 지원 Source: European Repository of Cyber Incidents, NATO, EY Analysis



사이버공격이 민간 기업이 아닌 국가 지정학 분쟁의 주요 수단으로 진화

정치 연관 사이버공격의 대상별 구분

■ 핵심 인프라 ■ 국가 기관/ 정치 체제



공격의 약 75%는 핵심 인프라 또는 국가 기관·정치 체제를 표적으로 삼음

민간 기업 대상 공격은 5% 수준

[Case 1] Salt Typhoon 사건

- 공격 대상**
 - 미국 및 글로벌 통신사, 정부·군·입법기관의 통신 시스템, 수입 개국³ 통신 인프라
- 공격 주체**
 - 중국 국가정보기관 연계 그룹으로 추정되는 지속 위협 그룹⁴ "Salt Typhoon"
- 목적**
 - 장기 침투로 통신 인프라의 데이터 수집
 - 정·재계 전략적 정보 확보 및 향후 작전 활용

[Case 2]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

- 공격 대상**
 - 우크라이나/러시아 양측 통신사, 주요 정부·에너지·금융 시스템
- 공격 주체**
 - 러시아 군 정보기관 연관 조직 및 우크라이나와 서방 협력 해커/정보 조직
- 목적**
 -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네트워크 가동 중단, 혼란 유도, 제어 시스템 공격
 - 우크라이나: 인프라 대상 보복적·전술적 공격

1. 국가·경제안보에 중요한 인프라 시스템과 밀접히 연결된 제조업 2. 클라우드·데이터센터 등 핵심 IT 서비스를 통해 다수 핵심 인프라의 운영을 지원하는 주체 3. 영국, 캐나다, 네덜란드, 호주 등 총 80여개 국가 타겟 4. Advanced Persistent Threat (APT) Actor: 고도화된 기술로 특정 조직이나 시스템을 표적으로 삼아, 장기간 침투 및 활동하는 지능형 사이버공격자
Source: European Repository of Cyber Incidents, EY Analy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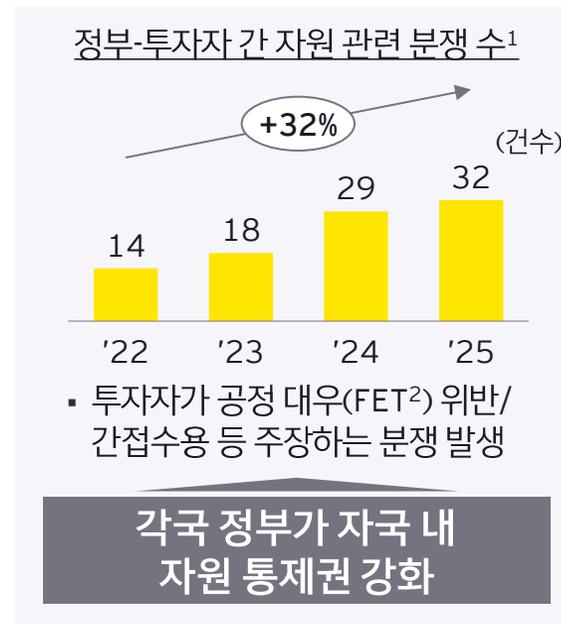
자원 경쟁은 미개척 영역을 둘러싼 국가 주도의 지정학적·안보 경쟁으로 전환

- AI·전력 인프라 확산으로 핵심 자원 및 데이터센터 냉각을 위한 수자원 등 전략 자원 수요 급증
- 매년 격화되는 국가 간 자원 확보 경쟁은 이제 극지·심해·우주 등 미개척 영역인 Cold Rush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물적 자원 외에도 접근권, 전략적 주도력 등 광범위한 영역까지 포함

자원 경쟁의 패러다임 변화

	과거	현재
경쟁 영역	육상 자원 중심 (석유·가스, 철광석 등)	미개척 영역으로 확대 (Cold Rush: 우주·심해·극지)
주도 주체	민간 기업 주도 (메이저 자원기업, 에너지 기업)	국가 주도 + 민관 결합 (정부·군·공기업 + 빅테크·전략기업)
경쟁 중점	비용 효율·채굴량 중심의 경제성 경쟁	안보·공급망·기술 주권 중심의 전략 경쟁 (장기 접근권·통제권 확보)

자원 관련 갈등 증가



BUSINESS IMPLICATIONS

- 미개척 자원 접근성 확보가 향후 주요 고려 사항
 - 가격보다 확보 안정성에 초점을 맞춘 자원 확보 전략 수립 필요
- 핵심 자원 관련 밸류체인 다변화 모색
 - 동맹국 중심 신규 벤더 탐색
 - 합법적 중립 거래 경로를 이용한 공급망 리스크 헷지

1. 정부와 투자자 간에 제기된 중재 사건 (World Bank's Arbitration Cases) 중 석유·가스·광업 부문으로 분류된 사례를 포함
Source: DLA Piper, 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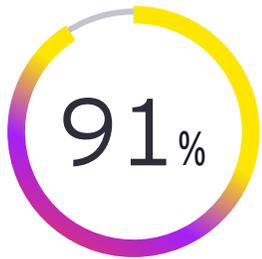
2.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미개척지 내 자원 및 부가적인 요소들이 점차 주목 받는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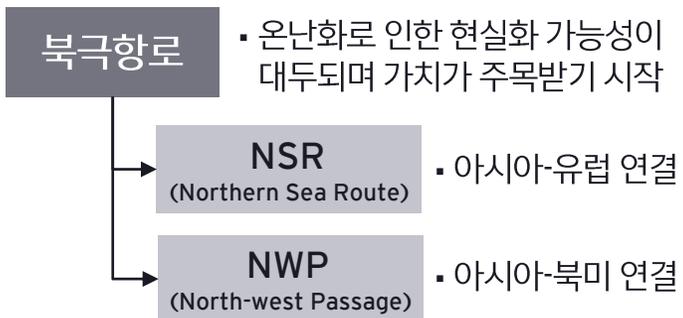
극지

핵심 자원 목록 中 북극권 내 보유 품목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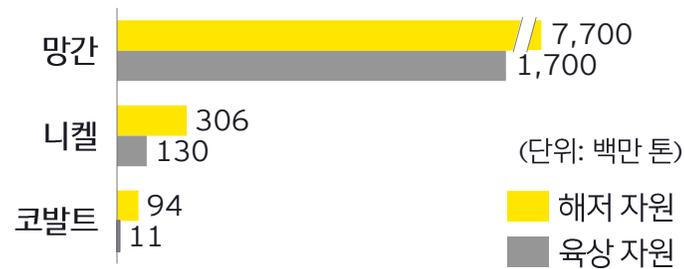
EU 지정 핵심 자원
총 34종 中
31종 존재 확인

북극항로 접근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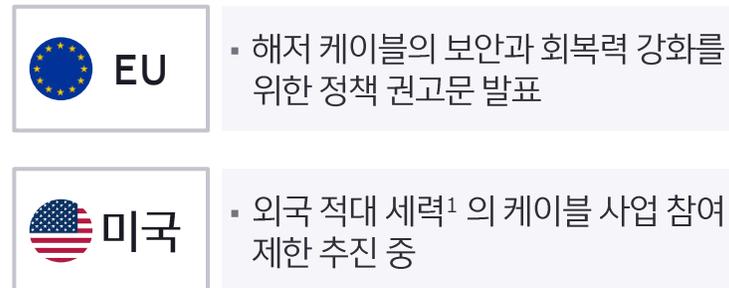


심해

핵심 자원별 글로벌 총 자원량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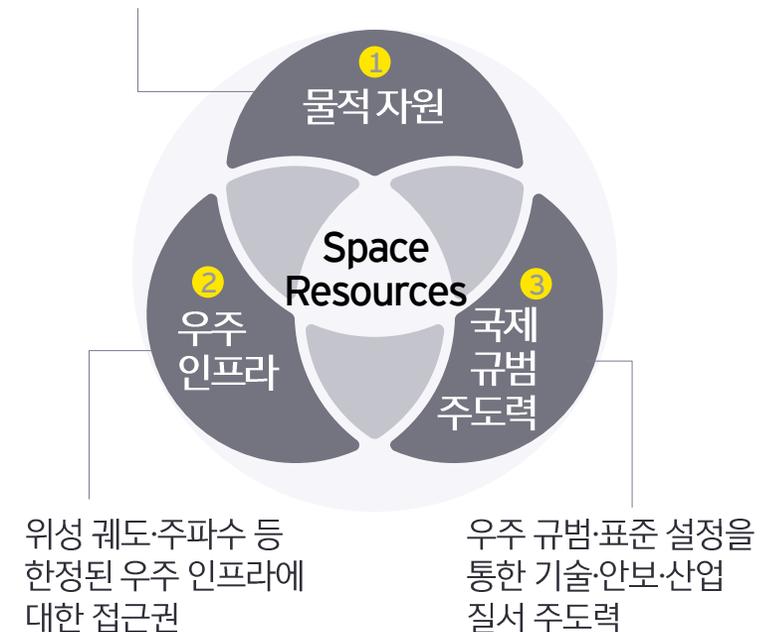
해저 케이블의 보호·통제 권한



우주

우주의 막대한 장기적 자원 잠재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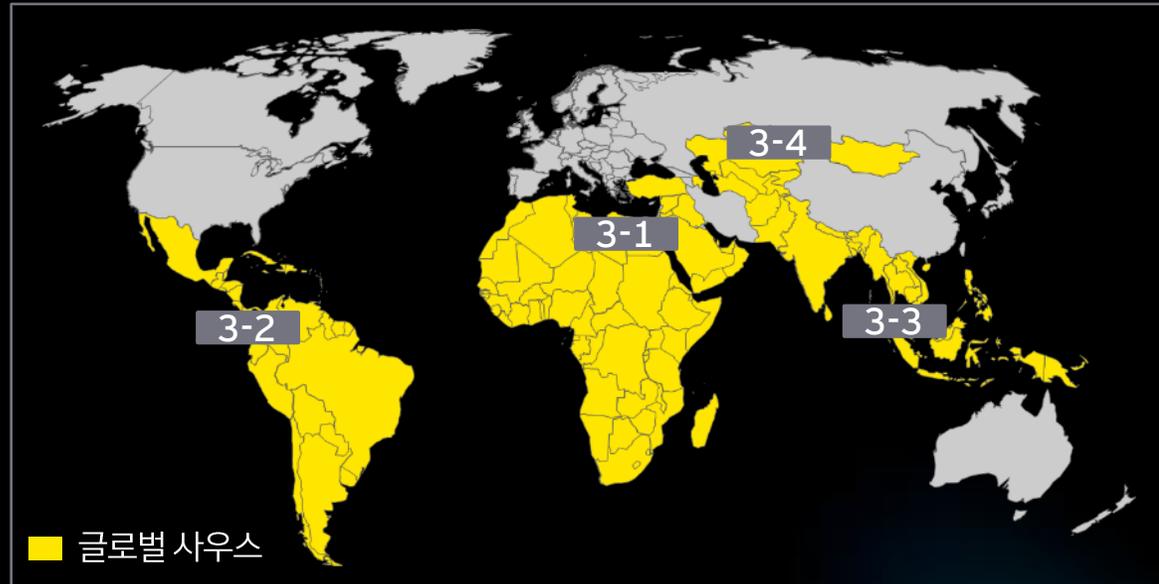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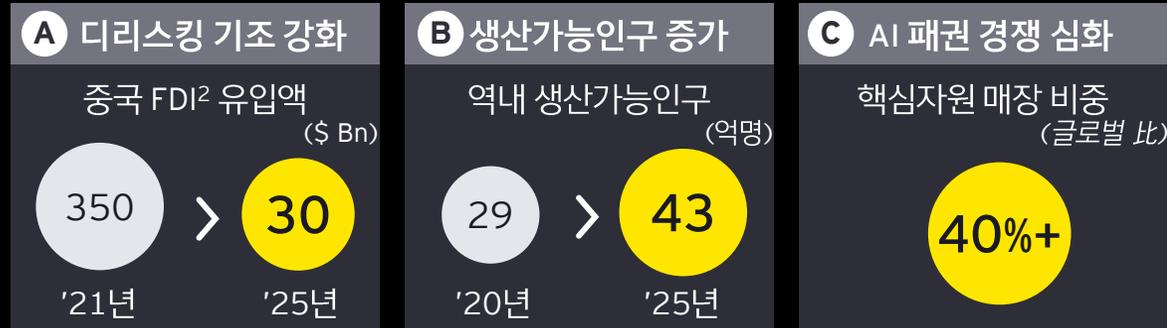
달·소행성에 존재하는 희소 자원, 물, 에너지 자원



1. "Foreign Adversary"로 분류된 국가 및 관련 기업
Source: USGS Mineral Commodity Summaries 2025, Arctic Economic Council, EY Analysis

기존 중국이 맡던 글로벌 성장 엔진 역할은 이제 글로벌 사우스에서 담당

글로벌 사우스¹의 부상



글로벌 사우스 주요 성장 지역

3-1
MENA³

전통적 오일 기반 경제에서 AI 패권 지역으로의 진화

3-2
LATAM⁴

경제 성장 및 친시장 기초로의 전환으로 글로벌 기업 사업 기회 확대

3-3
South & Southeast Asia

세계 최대의 실물 경제 블록이자, 글로벌 핵심 생산기지 역할 공고화

3-4
CIS⁵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시장의 Reopening

1. 미국, 유럽, 기타 선진국 및 중국-러시아 블록(북한, 이란, 벨라루스)을 제외한 나머지 130 여개 국가로 구성
 2. Foreign Direct Investment
 3. Middle East & North Africa
 4. Latin America
 5.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Source: Deutsche Bank, EY Analysis

전통적 오일 기반 경제에서 AI 패권 지역으로의 진화

- MENA 국가들의 국부펀드(SWF)를 통한 미국, 중국, 유럽 내 AI 기술 기업에 대한 지속 투자로 첨단 AI 기술 접근성을 높이고 있음
- 최근 국가 AI 경쟁력의 핵심으로 꼽히는 전력 수급 관점에서도 신속한 인프라 건설로 대응하는 중

AI 패권 경쟁의 새로운 강자로 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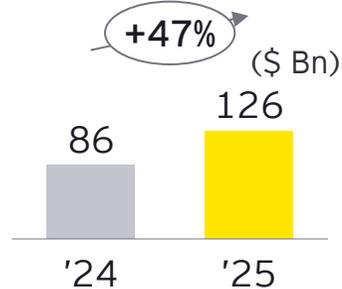
첨단 AI 분야 투자 확대

- 중동 펀드들이 글로벌 국부펀드의 핵심 자금
- 특히, AI 분야 신규 투자 크게 확대

중동 국부펀드의
연간 역대 투자액



중동 국부펀드의
AI 분야 투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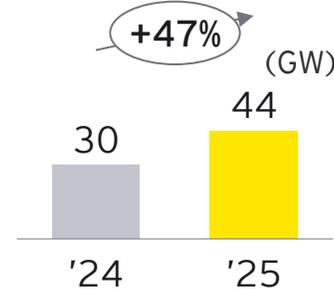
대규모 전력 용량 확보

- 부지 제한 최소화로 전력 인프라 건설 가속화
- 글로벌 가스터빈, 신재생 설비의 주요 수요처

신규 설치
가스터빈 규모¹



신재생E 인프라
신설 추이



BUSINESS IMPLICATIONS

- 1 정부 주도 AI 산업 육성 정책에 기반한 투자·협력 기회 모색
 - AI 생태계 내 핵심 파트너로 포지셔닝 필요
- 2 전력 수요 및 에너지 전환 수요 급증에 대응
 - 공공 및 민간 부문의 AI 확장으로 발생하는 전력 인프라 및 에너지 효율화 프로젝트 참여

1. '30년까지로 가스터빈 300여개 수준
Source: KIEP, EY Analysis

MENA 지역 내 데이터센터 프로젝트 또한 빠르게 증가하는 중

국가별 주요 데이터센터 프로젝트

Selective



A map of the MENA region with dashed lines connecting specific countries to their respective data center project details. The countries highlighted are Morocco, Kuwait, Qatar, Egypt, Saudi Arabia, and UAE.

국가	주요 프로젝트	상세 내용
모로코	[네이버 클라우드]	▪ Nvidia, Nexus 등과 500MW 규모 데이터센터 캠퍼스 설립 예정
쿠웨이트	[Ooredoo Kuwait]	▪ 쿠웨이트 최초의 소버린 AI 데이터센터 ¹ 론칭
카타르	[Brookfield & Qai JV]	▪ 약 200억 달러 투자, 통합 AI 데이터 센터 개발 추진
이집트	[Atlas Project]	▪ 재생에너지 기반 대규모 데이터센터 허브 구축 계획
사우디	[NEOM x DataVolt]	▪ NEOM 산업지구 Oxagon 내 1.5GW 규모 데이터센터 개발
UAE	[Stargate]	▪ 총 5GW 규모 목표의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 캠퍼스 구축

1. 국가가 데이터·연산·모델 운영 전반에 대한 통제권을 보유하여, AI 개발·학습 추론이 자국 주권과 규제 하에서 이루어지도록 설계된 데이터센터
Source: Mobile World Congress Doha, EY Analysis

경제 성장 및 친시장 기조로의 전환으로 글로벌 기업의 사업 기회 확대

- 지난 10여년 간의 LATAM 내 핑크타이드¹ 현상은 지속된 저성장 및 치안 불안정으로 전환 국면 진입
- '25년 LATAM 내 주요 선거에서 친미 성향의 정당들이 당선되며, 향후 경제 성장 및 친시장 기조 강화 예상

블루타이드² 현상으로 비즈니스 환경 개선



해외 자본 대상
인센티브 제공 및
대외 규제 완화



아르헨티나

- 해외 자본 유치 정책 실시
- 자원 및 인프라 관련된 투자 유치 강화 전망

친미 행보로
관세/제재 리스크
최소화



칠레

- 미국과 시장·투자·무역 부문에서 협력 강화 전망
- 낮은 FTA 철회 가능성

역내 치안/안보 강화



엘살바도르

- 조직범죄, 마약 및 국경 치안 강화 지속
- 국가 범죄율 대폭 하락

BUSINESS IMPLICATIONS

- 1 남미 주요 국가의 투자 유치 확대 기회에 적극 대응 필요
 - 특히, 기술 기반 기업 유치向 각국 정부의 지원 정책 적극 활용
- 2 대미 관계 유관 정책·관세 변수 모니터링 강화 필요
 - USMCA⁴ 재협약('26.07 예정) 내용 및 이민 정책 변화 등 주요 변수 점검 필요

1. 대내적 좌경화 현상으로 반미 성향이 강함 2. 대내적 우경화 현상으로 친미 성향이 강함 3.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온두라스 4. 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미국, 멕시코, 캐나다 간 무역 협정)
Source: 언론보도, EY Analysis

美 돈로주의에 따라, 향후 추가적인 블루타이드 확산 가능성 존재

현재 좌파 정권 집권국 대미 관계·고려 요소	 베네수엘라	 멕시코	 브라질
현재 대미 관계 국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에 의한 마두로 대통령 체포¹ 이후, 높은 긴장 상태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USMCA 기반 무역 파트너이나, 이민·치안 관련 마찰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⁴ 및 사법부 인사 제재⁵로 정치·통상 긴장 有
대미 관계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기 행정부 선출에 미국의 적극적 개입 예상되며, 친트럼프 정권 출범 시 관계 완화 高 	<ul style="list-style-type: none"> USMCA 재협상 이슈가 있으나, 현 정권 하, 역내 안정적 자원 자원 공급처로 관계 개선 가능성 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기 대선 우파 승리 시, 美 핵심 자원 공급 파트너로 협력 유력 룰라 재선 시, 中과 균형외교 예상
차기 대선 일정·정권 변화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기 대선 일정 미정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30년³ 6월 (예정) → '30년까지 정권 교체 가능성 低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6년 10월 (예정) → 우파 후보 단일화 실패 시 룰라 재선 가능
핵심 보유 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유: 약 3,030억 bbl (세계 1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리튬: 170만 톤 은: 3.7만 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철광석⁶: 3.4조 톤 보크사이트⁷: 27억 톤 (희토류 매장량 세계 2위) 니오븀⁸: 1,600만 톤

1. 미국이 2026.1.3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나르코-테라' 혐의로 체포해 미국으로 이송 2. CRS Factsheet에는 불확실(uncertain)로 표기 3. 6년 단임제로 재선 불가, 현 대통령은 '24년 당선 4. 미국의 對브라질 관세: 품목별 상이하나, 2025년 도입된 'Brazil tariff'로 다수 품목이 총 50% 수준 5. '25년 우파(보우소나루)를 지지하는 미국과 좌파(룰라) 정부 간의 정치적 대립 속에, 보우소나루를 처벌한 브라질 대법관이 미국의 제재를 받았다가 '25년 연말 제재가 해제된 사건 6. 조광석 기준 7. 알루미늄 원료 8. 고온에서 안정적인 성질을 가지며, 엔진/로켓 등 고온 엔지니어링 제품에 사용

Source: CRS Factsheet,美지질조사국, EY Analysis

세계 최대의 실물 경제 블록이자, 글로벌 핵심 생산기지 역할 공고화

- 남아시아&동남아시아는 인구 구조와 거대한 내수 기반과 국가 주도 성장 정책을 바탕으로, Post-China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최대 수혜 지역으로 부상
- 글로벌 기업들은 중국 의존도 완화 전략에 따라 남아시아&동남아시아 주요 국가로 생산기지 이전을 가속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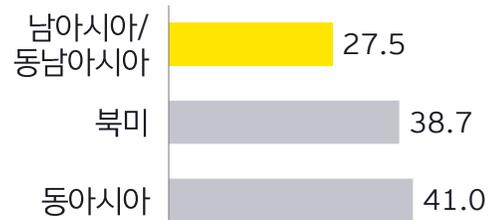
South & Southeast Asia 부상을 가속하는 핵심 Driver

내부 Driver

내수 시장 성장 확대

세계 인구의 약 25%가 남아시아에 집중되며, 낮은 평균 연령

권역별 중위 연령



국가 주도 성장 정책 확대

산업·인프라·투자 정책을 통해 성장 기반을 강화

- 인도**
 - 디지털 인프라 확대 통한 경제 생산성 강화
- 스리랑카**
 - FTA 확대/무역·투자 촉진
- 네팔**
 - 외국인 투자 절차 간소화 및 산업 단지/인센티브 확대

외부 Driver

글로벌 공급망의 역내 이전 지속

Post-China 공급망 재편의 최대 수혜 지역

- HP**
 - (~'27) PC 생산의 70%를 중국 밖으로 이전 계획 (태국 중심)
- Apple**
 - (~'26) 미국향 아이폰 생산 시설 대부분을 중국에서 인도로 이전
- ASUS**
 - ('25) 90%의 미국 판매 물량을 중국 이외의 생산기지로 이전 완료 (태국·베트남·인도네시아)

BUSINESS IMPLICATIONS

- 국가별 정책 고려한 선별적 투자 및 입지 전략 필요
 - 산업 육성·인프라·FDI 인센티브가 집중되는 국가·산업 중심 투자 강화
- 현지 내수 시장 성장에 따른 시장 선점 전략 병행 필요
 - 생산기지 진출과 동시에 현지 수요 기반 시장 진입 전략의 병행 추진

특히, 인도와 인도네시아는 지역 내 핵심 국가 역할을 담당

고성장 위한 구조적 기반 보유

 인도	
생산가능인구	약 10억 (글로벌 1위)
자원·물적 기반	인적자본 풍부
성장 동력 특징	내수 시장 성장과 글로벌 생산 투자가 결합

 인도네시아	
생산가능인구	약 2억 (글로벌 4위)
자원·물적 기반	니켈·코발트 등 핵심 자원 풍부
성장 동력 특징	자원 & 입지 경쟁력으로 인한 해외 자본 지속 유입

글로벌 핵심 생산기지로 부상

인도

「내수 결합형¹ 생산기지」

- 전자·방산 등 전략 육성 산업 기반 성장 추구
- 거대 내수시장과 육성 정책 기반 생산-소비 선순환 구조 형성



인도네시아

「조립·중간공정 중심 생산기지」

- 글로벌 기업의 생산/조립/가공 허브 역할 수행
- 전략 자원 기반 배터리·전자 부품의 조립·중간공정 특화

인도네시아 내 주요 기업 현황

CATL	약 60억 달러 투입하여 전기차 배터리 공장 신설
현대차	'배터리-전기차' 일괄 생산 체계 구축
Foxconn	수십억 달러 규모 조립기지 구축 추진 중

1. 국가별 보안·데이터 통제 강화로 기존 글로벌 일원화 클라우드 전략의 한계 2. 중산층: 약 \$5,530 ~ \$33,170/년 (가구 기준, 연간)으로 정의
 Source: India Brand Equity Foundation, PRICE(People Research on India's Consumer Economy), EY Analy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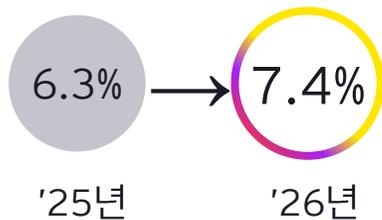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로 잠재력이 높은 시장의 Reopening

- 최근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 종전 협상이 진행 됨에 따라, CIS 지역 또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는 중임
- CIS는 높은 경제 성장률, 핵심 자원 보유량 및 글로벌 공급망 내 역할 확대로 지속적 성장이 예상됨

주요 국가들이 보유한 높은 잠재력



높은 경제 성장률



핵심 자원 보유



대체 불가능한 물류 회랑으로의 진화



1 중국-유럽 철도

- 홍해 리스크로 물동량 대폭 증가
YoY +66% ('25)

2 국제남북운송회랑¹

- 북극항로 연계 시, 新 실크로드 등급 '28년 완공

BUSINESS IMPLICATIONS

- 1 러시아 연계 루트 등 활용한 복수 물류 루트 확보 검토
 - 지정학적 변수에 따른 물류 리드타임 급변 가능성 최소화
- 2 로컬 파트너 / JV 활용한 투자 리스크 저감
 - 현지 이해도가 높은 파트너와의 긴밀한 협력 필요

높은 성장률 및 다량의 핵심 자원을 기반으로, 향후 전 세계 산업·농업·에너지 중심지와 소비시장을 연결하는 핵심 지역으로 부상

1. 러시아에서 이란을 경유해 인도까지 이어지는 운송로로 완공 시 운송 기간 80% 단축 예상
Source: KOTRA, EY Analysis



주요 섹터별 Impact

[Summary] 주요 섹터별 Impact

● 긍정 ● 부정 ● 중립

		첨단 제조/ 자동차	소비재/유통	에너지	금융	제약/바이오	Private Equity
종합 전망*							
국제 질서의 재편	돈로주의 등장	●	●	●	●	●	●
	소규모 다자주의로의 전환	●	●	●	●	●	●
	자본보호주의 확산	●	●	●	●	●	●
새로운 경쟁영역 등장	사이버전쟁 확산	●	●	●	●	●	●
	Cold Rush 본격화	●	●	●	●	●	●

*지정학 관점에서의 산업별 전망

주요 섹터별 Impact (1/6)

첨단 제조/
자동차

반도체/이차전지	+
방산(항공우주)	+
통신	+
자동차	+
...	+

1

첨단 제조 분야 패권 경쟁 격화로 AI·반도체 및 첨단 인프라 산업은 국가 주도의 투자가 확대

- 미·중 주도의 AI 투자 확대 속에 중동·EU도 국가 차원의 AI 투자 경쟁 가속
- 전력·수자원·핵심 자원 제약으로 자원·에너지 확보 전략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상

2

글로벌 무역 구조 변화 및 자원 확보 경쟁 가속화는 자동차·방산 산업의 공급망 재편을 초래

- 보호무역 강화로 소규모 다자주의 형태의 무역 확산, 자동차 산업의 단계별 공급망 이전 수요 지속
- 유럽·아시아 재무장 흐름으로 방산 수요는 지속 확대되나, 핵심 자원 수급 이슈 존재

3

국가 핵심 인프라로서의 첨단 제조 분야를 둘러싼 글로벌 사이버전쟁 리스크 확산

- 데이터 현지화, 국경 간 이전 제한 등의 소버린 AI 정책 확산으로 지정학적 경쟁국 간 사이버전쟁 가능성 高

주요 섹터별 Impact (2/6)

소비재/유통



F&B	+
화장품	+
유통	+
...	+

1

관세 및 무역 구조 변화는 소비재
가격 상승 및 글로벌 공급망
복잡성 심화 요인으로 작용

- 관세·수출 통제의 간접 영향으로 물류 지연·원가 상승이 확대되며 소비재 가격 상승 압력 지속
- 관세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공급망 이원화·지역 분산으로 운영 복잡성과 관리 비용 증가

2

소비자 데이터 유출 이슈 지속에
따른 기업 경영 리스크 증대

- AI 기반 데이터 활용 기회 확대와 함께 개인정보·추적성 규제 강화로 컴플라이언스 부담 증가
- 브랜드 노출도와 고객·결제 데이터 집중으로 사이버공격 및 연계 리스크 상시화

주요 섹터별 Impact (3/6)

에너지

1

에너지 집약 산업 확산과
지정학적 경쟁 심화에 따른
인프라 수요 및 운영 리스크 확대

- AI 데이터 센터·정유·첨단 제조 확산으로 전력 수요 급증, 전력·유틸리티 인프라 증설 가속
- 전력 인프라의 국가 핵심 자산화로 사이버공격, 전력망 교란, 해상 운송로 차질 등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2

국가의 정책 개입 확대로
에너지·유틸리티 기업의 비용 부담
및 수익 변동성 확대

- 로열티 인상·가격 통제·환율 제도 등 정책 변화로 수익성 영향 및 규제 대응 비용 증가
- 정책·금리·환율 변동성 확대로 대규모·장기 투자 자본 배분 리스크 확대

3

핵심 자원 확보 경쟁 심화로
ESS·재생에너지·전력망 설비
전반에서 공급망 병목 발생 가능

- 배터리·특수강·희토류 등 전략 자원의 국가 주도 확보 경쟁 심화로 에너지 전환 핵심 설비의 원자재 조달 안정성 저하
- 동시에 자원 효율 제고·대체·재활용을 위한 투자 본격화로 관련 기업의 중·장기 성장 기회 확대

유틸리티	+
정유·가스	+
광업·금속	+
...	+

주요 섹터별 Impact (4/6)

금융



은행	+
보험	+
자산 관리	+
...	+

1

전략 산업·안보 연계 투자 확대로
금융기관의 기업금융·자문 및
리스크 관리 역할 확대

- 무역 압박·소버린 AI·핵심 자원 경쟁으로 기업금융·프로젝트 파이낸싱·자문 역할 확대
- 안보 연계 투자 증가로 금융기관의 ESG 기반 리스크 관리·감독 강화

2

국가 개입주의와 주요국 재정
건전성 악화로 글로벌 자산 배분
전략 재조정 필요성 증대

- 정책 블록화·자본 통제로 해외 투자 규제 확대, 글로벌 자본 이동 제약 및 금융기관 전략 재조정 필요
- 환율·금리·자산가격 변동성 확대로 금융 리스크 관리 비용 증가

3

사이버전쟁 확산에 따른 금융기관
데이터 보호 및 운영 리스크 증폭

- 국가 주도 사이버 분쟁 확대로 금융·보험사의 보안·운영 리스크가 증폭되며, 보안·사고 대응 역량이 핵심 투자 영역으로 부상

주요 섹터별 Impact (5/6)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 +

헬스케어 +

... +

1

관세 부과·조달 요건 강화 등
주요국 의약품 관련 규제 강화로
컴플라이언스 위반 주의 필요

- 미국 약가 협상과 신흥국 중심의 비용 민감형 의약품¹ 확산으로 의료·제약·의료기기 수익성 변동성 확대
- 공급망 민감 품목 스크리닝 및 조달 규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수주·납기·매출 안정성 확보 필요

2

사이버위협 증대로 인한 AI 기반
신약개발의 데이터 거버넌스 및
운영 리스크 확산

- 의료 데이터가 핵심 인프라로 인식되며 랜섬웨어·데이터 탈취 등 사이버공격 리스크 구조적 확대
- 데이터·프라이버시·알고리즘 규제 및 감독 강화로 AI 개발 후보물질의 근거 데이터 및 재현 가능성 확보 중요성 증대

1. 비용 민감형 의약품(Cost-Sensitive Pharmaceuticals): 가격 변화에 수요(처방량)가 크게 반응하는 의약품으로, 저마진 제네릭 의약품, 약가 인하가 적용되는 의약품 등을 의미

주요 섹터별 Impact (6/6)

Private Equity



1 자본보호주의 확산으로 거래 전반의 복잡성 확대

- 국경 간 IPO·M&A 승인 난이도 상승 및 딜 구조 복잡성 확대
- 거래 승인 이후에도 기업 운영 및 컴플라이언스 비용이 증가하며, 위반 시 리스크가 클 것으로 예상

2 미 금리인하 사이클 돌입에도 자금 조달 비용 하락이 제한적

- 기준금리 인하와 대출 스프레드 하락間 시차 발생으로 인해, PE의 체감 조달비용은 당분간 여전히 높을 예상
- 저비용 LBO¹ 위축 지속으로 레버리지보다 실적 개선·벨류업 중심 IRR² 전략 필요

3 사이버보안이 필수 운영 인프라로 전환되며, PE에 매력적인 투자 섹터로 부상

- AI로 고도화된 랜섬웨어·공급망 공격 확산으로 사이버보안은 필수 인프라 항목으로 전환
- 고객 락인과 높은 반복매출 확보가 용이해, 매출 변동성이 낮은 포트폴리오로 PE의 투자 지속 증가 전망



지정학적 이슈 대응 전략

지정학적 이슈 대응 전략 (3P 전략)

New Rules and Norms



Perception

지정학 신호 분석 및 대응 위한 자체 프레임워크 구축

- 지정학 이슈 실시간 대응을 위한 전문 조직 및 AI 시스템 구축
- 정부 대관, 컴플라이언스 등 역량 확보 통해 정책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 필요

Next Field of Competition



Partnership

새로운 영역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최적의 파트너십 설계

-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대한 리스크 헷지 극대화 위한 파트너십 체결 및 생태계 참여
- 자원 보유국, 미개척지 접근권 보유한 국영기업·MDB¹와의 컨소시엄 필요

The Rise of Global South



Positioning

차세대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사우스 지역 진출 적극 고려

- 높은 성장률과 양질의 저비용 노동력이 제공되는 블루오션 물색이 중요한 시기
- 산업별 정책·수요·경쟁 관점에서 최적의 국가를 선정하여 진입 필요

Contact Point

산업연구원장 전략컨설팅 리더

권영대 원장

young-dae.kwon@kr.ey.com

산업연구원 실무 총괄

김광현 상무

kwanghyun.kim@kr.ey.com

산업연구원

민운기 매니저

woonki.min@kr.ey.com

남정언 시니어

jungun.nam@kr.ey.com

조아미 시니어

amy.killick@kr.ey.com

EY | Building a better working world

EY is building a better working world by creating new value for clients, people, society and the planet, while building trust in capital markets.

Enabled by data, AI and advanced technology, EY teams help clients shape the future with confidence and develop answers for the most pressing issues of today and tomorrow.

EY teams work across a full spectrum of services in assurance, consulting, tax, strategy and transactions. Fueled by sector insights, a globally connected, multi-disciplinary network and diverse ecosystem partners, EY teams can provide services in more than 150 countries and territories.

All in to shape the future with confidence.

EY refers to the global organization, and may refer to one or more, of the member firms of Ernst & Young Global Limited, each of which is a separate legal entity. Ernst & Young Global Limited, a UK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Information about how EY collects and uses personal data and a description of the rights individuals have under data protection legislation are available via ey.com/privacy. EY member firms do not practice law where prohibited by local laws. For more information about our organization, please visit ey.com.

© 2026 Ernst & Young Han Young
All Rights Reserved.

APAC No. 05001300
ED None

This material has been prepar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is not intended to be relied upon as accounting, tax, legal or other professional advice. Please refer to your advisors for specific advice.

ey.com/kr